



정민규/정수정 선교사

TEL: 82-10-7223-9487 E-mail: j_m_kyu@hotmail.com

GP선교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77-3번지 TEL: 02-443-0883

후원계좌 : 하나은행 990 090819 170 정민규, 정수정

2021년 10월

“그리스도의 계절! 나의 소망!”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분의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에게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며 문안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이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민규선교사는 총신대 M.div를 마치고 예장 합동 총회의 강도사고시를 거쳐 얼마 전 10월 11일에 목사 임직 하였습니다. 원래는 강도사로 인허 후에 1년간 강도사로 사역하고 목사고시를 치르고 목사 임직을 하지만, 노회에서는 선교사이기에 강도사 인허 후 바로 목사 임직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12월 중에 정민규선교사가 먼저 브라질에 가서 집과 살림을 준비하고, 정수정 선교사는 1월 말에 아이들이 학기가 끝이 나면 한국에 있던 짐을 정리하고 브라질로 귀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브라질 정착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리는 것은,

브라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들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하도록 기도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을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우선은 항공료와 정착에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교회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 재정 후원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브라질로 귀임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은 한국에 있던 친구들과 헤어져 새로운 언어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998년 하나님께서는 당시 대학생인 저에게 인디오를 선교할 수 있는 브라질 현지인 선교단체를 만드는 비전을 주시고 2005년 GP선교회 선교사로 허입되어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7년 아내와 배속에 4개월 된 아이와 함께 가정으로 브라질에 보내셨습니다. 이때 저희 가정만 보내시지 않으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보내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가정에 물질과 기도로 동역하여주시는 교회와 성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민규/정수정 선교사(소연/창연/태연)

연락처 : j_m_kyu@hotmail.com 또는 <http://www.facebook.com/mingyu.jeong2>